

# 중앙 계열사 회생신청... 저축은행·캐피탈 1137억 회수 비상

JTBC 디폴트 여파 금융권 확산  
계열사 법정관리로 채권 회수 차질  
총당금 부담에 수익성 악화 우려  
일부 저축은행 순익 타격 불가피  
캐피탈사는 조달시장 경색 부담  
BBB급 중심 유동성 압박 가능성



서울 마포구 JTBC 사옥 내부 이미지. /뉴스시스

중앙그룹 계열사가 회생절차를 신청(법정관리)한 가운데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가 떠안은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총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캐피탈 업권은 시장 경계감 확대에 따른 유동성 악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그룹과 관련한 저축은행·캐피탈 업권의 총 위험노출액은 1137억원 규모다. 저축은행이 340억원, 캐피탈사가 79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는 원금 회수 지

연, 총당금 추가 적립, 건전성 지표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중앙그룹 계열사인 JTBC는 206억원의 유동화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이를 기점으로 중앙홀딩스, 콘텐츠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 계열사 4곳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하루

뒤 JTBC도 추가로 회생 신청을 냈다.

회생 신청 여파는 금융권의 잠재 부실 리스크로 번졌다. 저축은행 업권에서 중앙그룹 익스포저를 보유한 곳은 총 10곳이다. 그 가운데 JT친애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KB저축은행 3개사가 업권 전체(340억원)의 약 40%에 달하는 138억원의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다.

사별로 살펴보면, JT친애저축은행은 JTBC에 대해 전자단기사채(전단채) 50억원 규모의 익스포저를 지니고 있다. 푸른저축은행은 중앙일보엔프리에 대출 채권 50억원, KB저축은행은 휘닉스중앙제주에 대출 채권 38억4000만원을 갖고 있다.

캐피탈사 중에서는 하나캐피탈이 가장 큰 규모의 익스포저에 노출됐다. JTBC 200억원, 콘텐츠리중앙 200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KB캐피탈이 중앙일보엔프리에 약 160억원, 그외 캐피탈사가 중앙일보에 237억원의 대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저축은행 업권의 단기 수익성 악화다. 중앙그룹 회생 신청 여파가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JT친애저축은행의 경우 JTBC 회생에 따라 전액 손실을 가정하면, 추가로 적립해야 될 총당금은 최대 49억6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는 수준이다.

캐피탈사의 경우 익스포저 비중이 전체 자본총계의 1~2% 수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담이 적은 실정이나 시장 경계감 확대에 따른 위험 부담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신용평가측은 "캐피탈업권의 경우 중앙그룹발 신용위험 사태가 시장의 경계감 확대에 이어질 경우 BBB급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조달조건 저하 등 유동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최근 캐피탈업권의 기업·투자금융 내 중·저신용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모사채를 비롯한 보유 기업·투자금융 자산의 건전성 저하, 대손비용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재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 신현송 "시장 가격에 흘리지 말라"... 유가發 하반기 물가부담 경고

(한국은행 총재)

한은, 유가 안정에도 물가 경계  
고유가 부담, 하반기 전이 우려  
공업제품·서비스값 상승 가능성  
임금 압력 겹치면 물가 부담 확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이 하반기부터 석유류를 넘어 공업제품·서비스 등 근원물가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국제유가가 일부 안정되더라도 누적된 비용 압력이 시차를 두고 물가 전반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단기 시장가격보다 중장기 물가 흐름을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시장 가격에 흘리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자체를 봐야 한다"며 "앞으로의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2월 2.0%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안정됐지만, 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이후 빠르게 높아져 5월 3.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5월 2.5%로 올랐고, 생활물가는 3.3%까지 상승했다.

물가 상승의 직접적 원인은 석유류다. 5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2% 뛰었다. 항공료와 단체여행비 등 유가와 연계성이 높은 서비스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근원물가 상승폭을 키웠다.

신 총재는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0% 넘게 상승했고 근원물가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흐름을 보이면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 ◆ 간접효과 시차 두고 온다

문제는 유가 안정에도 물가 부담이 곧바로 사라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은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진전으로 국제유가 상승 리스크가 일부 완화됐지만,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와 국제유가 안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여기에 고유가·고환율로 높아진 비용 압력이 시차를 두고 여타 품목 가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영주 한은 물가고용부장은 "아직까지는 유가 충격이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간접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하반기 이후 물가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 상승은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오르는 직접효과가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생산·유통비용 상승이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간접효과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국제유가 상승 직후에는 석유류 가격이 먼저 반응했지만, 이후 공업제품과 서비스, 전기·가스 가격으로 충격이 순차적으로 확산됐다. 김 부장은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약 14~18개월 시차를 두고 가장 크게 반응했다"며 "유가 충격의 영향이 간접효과를 통해 물가 전반에 반영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 분석에 따르면 라우 전쟁 직후에는 유가 상승의 직접효과가 컸지만, 약 6개월 이후부터 간접효과 기여도가 커져 1년간 지속됐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뒤에도 간접효과는 오히려 확대됐고,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약 20%를 설명했다. 한은이 유가의 단기 하락보다 물가 압력의 지속성에 더 무게를 두는 이유다.

### ◆ 통화정책 '확신' 전까지 경계

수요 측 물가 압력도 새 변수로 떠올랐다. 한은은 반도체 등 IT 기업 실적 호조가 소득·자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일부 IT 대기업의 성과급 확대가 산업 전반의 임금 상승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주목했다. 올해 1분기 IT부문 특별급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장은 "향후 물가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는 IT 특별급여가 산업 전반의 임금 상승으로 얼마나 확산될지 여부"라며 "특별급여 규모가 이례적으로 확대될 경우 일회성 보상을 넘어 향후 임금협상과 임금 기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액급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금 상승이 본격화되면 비용 측 압력과 수요 측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주희기자 gh471@



metro

# 중전 국면에도 방공 수요 여전... K-방산 수출 탄력

천궁-II 실전 성과에 추가 발주 기대  
인니·말레이 등 아시아 논의 확산  
전차·전투기·자주포로 수출 확대

중동 지역 전쟁이 중전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K-방산에는 '전후 특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쟁을 계기로 방공망 보강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천궁-II를 비롯한 한국산 방공체계와 항공·지상무기 수출 논의가 중동을 넘어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중전 이후에도 이란의 미사일 역량은 여전하고 헤즈볼라·후티반군 위협도 남아 있어 중동 국가들의 다중 방공망 보강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주목받는 무기체계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II(M-SAMII)다. UAE 배치분이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탄도·순항미사일 공격에 96% 수준의 요격 성과를 거두면서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천궁-II는 LIG D&A가 체계종합을,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레이더와 발사대·차량을 담당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이미 천궁-II를 도입한 가운데 DS투자증권은 쿠웨이트·카타르 등 신규 시장과 기존 도입국의 추가 발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천궁-II 2개 포대 구매의향서(LOI)를 전달했고, 말레이시아도 도입 후보군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UAE·사우디아라비아와 KF-21 수출 및 5·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이라크와 약 250대 규모의 K2 전자수출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형 K2ME 개발이 완료돼 정세 안정화 이후 협상 재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장갑차·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IG D&A는 독일 라인메탈 에어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NATO 방공 시장 공략에 나섰다. 양사는 합작 회사 설립과 단거리 방공미사일 공동개발을 검토하며 다중 방공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 설계 등 주요직무 '세 자릿수' 선발

>> 1면 'SK하이닉스...'서 계속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환경 속에서 미래 인재들의 경쟁력은 특정 학위나 정형화된 스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채용 기준을 혁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번 수시 채용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이끌어 갈 '설계'를 비롯한 주요 직무에서 수시채용으로 는 이례적으로 '세 자릿수' 단위의 대규모 선발을 진행한다.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적극 채용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잠재력을 지닌 신입사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원을 대거 선발해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에 글로벌 AI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입사원 수시 채용 서류 접수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상세 전형 일정은 SK하이닉스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